

# 김룡사의 3·1운동

한상길\*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김룡사 3·1운동의 전개
- III. 김룡사 3·1운동의 주역
- IV. 김룡사의 의병투쟁과 근대교육 활동
- V. 맺음말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49-79.

## 한글요약

김룡사의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였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만세운동을 직접 전하는 자료는 2건 뿐이다. 당시 김룡사 지방학림 학생으로 만세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민동선이 1969년에 남긴 회고록이 첫 번째이다. 다음은 역시 지방학림 학생이었던 김철의 회고 편지를 재구성하여 1991년에 쓴 잡지 글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세운동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한다. 나아가 근대신문과 잡지 등의 자료를 탐색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당시의 주역들이 이후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김룡사 3·1운동의 가치와 위상을 이해하였다.

일찍이 김룡사는 민족과 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쳤다. 의병투쟁의 거점으로서 진영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일제에 의해 식량과 재물이 압수되는 고난을 여러 차례 겪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의연금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김룡사의 민족의식은 마침내 근대교육을 시행하는 지방학림과 보통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07년 설립한 경흥학교는 경북지역 사찰이 청년승려 교육을 위해 창설하였다. 승려뿐만 아니라 재가 청년까지 아우른 근대교육의 산실이었다. 민족의 근대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방학림에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눈뜬 청년들은 독립의 의지를 결집하여 만세운동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민족 계몽과 교육, 사회활동, 그리고 청년불교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전통과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불교계이지만 국가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찰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 주제어

김룡사, 김룡사지방학림, 3·1운동, 한용운, 전장현, 송인수, 성도환, 김훈영, 김혜웅

## I. 머리말

1919년 3월 1일 이후 독립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불교계에서도 각지의 사찰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여한 한용운과 중앙학림 청년승려들의 활약에서 비롯되었다.<sup>1)</sup> 지금까지 불교계가 주동한 지방 사찰의 만세운동은 14건으로 파악된다. 범어사, 해인사, 봉선사, 신륵사, 통도사, 표충사, 동화사, 청암사, 도리사, 김룡사, 대흥사, 화엄사, 법주사, 석왕사 등이다.<sup>2)</sup> 이 중에서 범어사와 동화사, 통도사, 표충사, 해인사 등의 사례가 연구되었고,<sup>3)</sup> 나머지 사찰의 만세운동에 관해서는 전개과정 등의 실상 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만세운동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대표적인 노력이 대한불교조계종의 3·1운동백주년기념사업 연구위원회이다. 2017년부터 불교사회연구소가 주관하여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4차례 개최하였다. 그 결과를 모아 2권의 논문집으로 출간하였는데 모두 15편의 논고가 수록되어 불교계 3·1운동의 다양한 역사가 조명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만세운동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본고의 주제인 김룡사의 3·1운동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였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계와 불교계의 관심 부족이

1) 김광식, 「3·1운동과 중앙학림」,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6,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7.

2) 김광식,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7, pp. 78-80.

3) 강대민,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 배진영, 「범어사 명정학교의 3·1운동 재조명」,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어사 3·1운동 재조명],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2019. 2. 20. ; 김일수, 「동화사 지방학림. 보현사의 3·1운동」, [3·1운동 100주년 기념 불교학술세미나], 대구불교총연합회, 2019. 1. 17. ;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8, 한국불교학회, 2018, pp.209-242.

4) [3·1운동 100주년 기념 불교학술세미나], 대구불교총연합회, 2019. 1. 17. 부산 MH 컨벤션센터. [3·1운동 100주년 기념 범어사 3·1운동 재조명],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2019. 2. 20. 범어사 설법전.

큰 원인이었다. 만세운동을 직접 전하는 자료는 2건 뿐이다. 당시 김룡사 지방학림 학생으로 만세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민동선(閔東宣)이 1969년에 남긴 회고록이 첫 번째이다. 다음은 역시 지방학림 학생이었던 김철(金澈)의 회고 편지를 재구성하여 1991년에 쓴 잡지글이다.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문경시에서 사지와 독립운동을 편찬하면서 만세운동을 소개하였다.<sup>5)</sup>

필자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세운동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한다. 나아가 근대신문과 잡지 등의 자료를 탐색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당시의 주역들이 이후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룡사 3·1운동의 가치와 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 II. 김룡사 3·1운동의 전개

김룡사의 3·1운동은 1919년 4월 13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의 김룡사 지방학림 학생들이 일으킨 만세운동이다. 3월 25일 김룡사의 공비생으로 중앙학림에 유학 중이던 전장헌(錢藏憲)이 독립선언서를 몰래 학생들에게 전해주었다. 민족독립의 열망으로 가득 찬 젊은 승가와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만세운동을 기획하였다. 마침내 4월 13일 한두리의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장터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펼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목정(梨木亭) 석문안(石門內) 근처에서 김룡사 주지 혜옹(慧翁)의 저지로 중단되고 말았다. 다음날 학생들 전원은 일본경찰에 의해 연행,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석방되었으나 송인수(宋仁洙)와 성도환(成道煥)은 주모자로 지목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이와 같이 김룡사의 3·1운동은 실행단계에서 중단되었다. 만세운동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과정과 전하는 기록 등이

5) 문경시,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2009. 『운달산 김룡사』, 2012.

거의 없다. 1919년 8월 조선헌병대 사령부가 작성한 각 도별 3·1운동에 대한 종합보고서에도 김룡사의 3·1운동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sup>6)</sup>

김룡사 3·1운동의 실체를 전하는 자료는 두 건에 불과하다. 당시 지방 학림의 학생 신분으로 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했었던 민동선이 1969년에 직접 쓴 회고록과 그와 김철의 회고 편지를 재구성한 1991년의 「김룡사 지방학림 만세사건」이라는 잡지 글이 전부이다. 이를 통해 만세운동의 과정을 살펴본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자 雲達山 깊숙한 산속에도 독립선언서와 여러 종류의 격문과 경고문들이 빗발치듯 날라들기 시작하고 비밀리에 모종 사명을 가진 청년들이 분주히 드나들었던 것이다. 독립선언서에 韓龍雲과 白龍城先生이 민족대표로 가담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들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까지 하였다. 그때 지방학림학생들 수효가 모두 80여 명이 있었는데 속가에서 온 십여 명을 제외하고 승려학생들은 거의 같은 심정이었다. 교실 수업시간이 끝나면 산골로 물가로 돌아다니면서 시국을 논하고 우리의 행동계획을 약속하곤 하였다. 그 해 가을이었다. 선생이 돈이 없어서 사식차입에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의 빈한한 주머니를 털어서 약소한 돈이나마 건우어서 계동 唯心社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해 겨울에 해인사 애국청년 金章允, 朴達俊, 金奉律 등이 모종 사명을 갖고 김룡사로 들어오던 중에 밤중에 동구에서 매복 중이던 일경에게 두 사람은 탈주하고 김장윤이 체포되어 그 익일 문경읍 본서로 압송 도중에 새목재 정상에 이르자 그 때 마춤 눈이 장설로 쌓여서 길인지 절벽인지 분간 못할 지경에 일경을 발로 차서 만장벼랑 밑으로 굴여떨어트리고 도망친 일이

6) “3월 30일, 타인의 선동에 의하여 달성군 동화사 사립지방학림 생도 10명이 대구 부 시장에서 시위운동을 하였으며, 4월 상순에 경남 해인사 부속학교 생도 수 명이 김천군 내에 숨어들어 선동한 사례가 있는 외에는 동 교도가 관계된 지방은 없다. 그리고 앞에 든 망동자는 주지, 기타 불교 포교자와 하등의 연락도 없이 자동적으로 다른 예에 따르려 한 데 기인하는 듯하다. 사법 처분에 붙여진 자의 수는 33명이다.” 『조선소요사건 상황』 조선헌병사령부, 191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6 : 3·1운동사자료집』, 1984, p.606.

있는 뒤로 김룡사 주변일대는 벼라별 유연비어가 떠돌고 인심이 자못 흥흥하였다. 山雨欲來風滿樓라는 말과 같이 김룡사에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일반 심정이 떠돌았다. 그 이듬해 1920년(1919년이다. 필자 주) 봄 만산에 진달래가 지고 보리가 백무렵이었다. 김룡사 80여 명 학생은 드디어 쫓기하였다. 독립선언서와 경고문을 밤새워 비밀리에 프린트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각각 품에 지니고 大下里 장날을 기하여 일대 진군을 시작하였다. 시장까지 거리가 30리인데 중간쯤 가다보니 대하리 쪽에서 주지화상이 말을 타고 바빠 우리 편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다. 우리와 딱 마주치자 말에서 내리더니 길을 가로막으면서 그대들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 전진을 중지하고 돌아가자는 것이다. 다소 싱강을 하다가 되돌아오고 말았다. 바로 그날 밤에 헌병 10여 명이 총무장을 하고 김룡사에 도착하여 그 익일에 모두 체포되어 문경 본서로 가서 며칠 심문을 받고 상주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다 무죄 석방되고 세 사람이 대구지방법원으로 옮겨가서 1년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어 옛산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알은 일이지만은 주지화상이 학생들의 거사계획을 사전에 탐지하고 미리 대하리 관할 주재소에 밀고하였던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친일 주지 金모를 암살하려고 자객이 며칠날 김룡사에 도착한다는 소문이 떠돌아 다시 한 번 우리들의 신경을 놀라게 하였다.

거의 1년 동안 돌풍을 겪고 산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머릿속은 사뭇 착잡하기만 하였다. 지금까지의 희미하였던 민족의식이 강해지려는 동시에 항쟁의식이 발흥하는 것과는 별도로 나의 신앙생활과 사원생활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날 생각하던 나머지 동지 중에 한 사람은 일본 山口현 曹洞宗中學으로 가고 그 외 다섯 사람은 서울로 보따리를 옮기고 말았다.<sup>7)</sup>

1919년 무렵 김룡사 지방학림의 모습과 당시 학생들의 의식, 만세운동의 준비, 실행, 중단 과정 등을 알 수 있다. 80여 명 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경고문을 비밀리에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진군을 시작하였으나

7) 민동선, 「韓龍雲先生 回想記」, 『불교계』 22, 1969, pp.16-18.

주지의 저지로 중단되었다. 다음날 모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3인이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였다.

1991년 당시 문경 영순중학교의 교감 최병식은 위의 민동선과 당시 지방학림 학생이었던 김철의 편지를 기초로 만세운동의 실상을 고찰하였다.

이 글은 당시 학생이던 대휴 김철(大休 金澈)옹의 진술과 상급생이던 민동선(閔東宣)옹이 보내 온 서답을 토대로 문경군내 최초의 기미년(1919년) 만세 쫓기를 기록할 수가 있어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감루를 금할 길 업서 펜을 진척시킨다.

1919년 3월 25일 김룡사의 공비생으로 중앙학림에 유학 중이던 전장헌(錢藏憲) 학인이 구두창 밑에 독립선언문 한 장을 숨겨왔다. 후환이 두려워 전장헌 학인은 다음날 급거 상경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쫓기 상황이 순식간에 요요적적하던 이 산내에 과도쳐 전해졌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젊은이들이라 밤을 세워 독립선언문을 필사했고 태극기를 수많이 제작했으며 만세쫓기를 모의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그리하여 산북면 사무소의 소재지인 한두리의 장날을 기하여 장터에서 거사하기로 모의하고 4월 13일 아침 공양을 마치자 태극기와 경고문, 독립선언문을 은닉하여 30여 명이 1단이 되어 한두리 장터를 향하여 보무도 당당히 산문을 떠나 장도에 올랐다.

쫓기대는 가슴을 조이며 이목정(梨木亭) 석문안(石門內)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단구의 교장이신 혜옹(慧翁)스님은 조랑말을 타고 와서 느닷없이 앞을 가로 막았다. 혜옹스님은 천 년 고찰인 김룡사에 화가 미칠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다.

“알았다. 너희들의 뜻을 잘 알았으니 돌아가자.”고 호소와 호령기 섞인 어조로 가로 막았다.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승가의 가풍이라 이들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무위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이목정에 주둔하던 일본 헌병 5, 6명이 완전무장으로 뒤따랐다.

귀사한 학생들은 누구나 씩씩한 얼굴로 눈빛이 마주치면 쓴웃음을 교환했다. 다음날 조식 공양 후 교실에 학생들을 몰아넣고 문전에서 차례로 수갑을 채워 일당 27명을 줄지어 앞 뒤 옆으로 헌병들이 호위를 하고

문경읍 헌병대로 압송되어 갔다.

김룡리 석봉리의 동구를 지나고 새목재(鳥項嶺)를 넘어 무거운 발길을 옮겨 갈 때 동리사람들은 줄지어 나와서 마음의 갈채로 성원을 해주었고 새목재 기슭 산전(山田)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이들 행렬이 지나간 먼발치에서 그만 만세 소리를 터뜨리고 말았다. 일본 헌병들은 ‘척쇼오(畜生)’하며 욕설을 터뜨렸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궐기단 일행은 문경읍 헌병대에 구치되어 10여 일을 두고 호된 심문을 받았다. 이듬해인 1920년(1919년이다. 필자 주) 봄의 어느 날 상주검사 지청으로 넘겨져서 2명은 가까스로 풀려날 수가 있었으나 이들 중 김훈영(金勳永), 송인수, 성도환의 세 학인은 대구지방 법원으로 기소되고 그 후 1년 집행유예로 풀려 날 수가 있었다.

이들이 구치되어 있는 기간 중 교장 해웅스님의 석방 운동도 크게 주효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당시 해웅스님의 언변과 수완을 일인들도 크게 경탄했었다고 한다.

그 후 송인수 학인은 학력이 일장하여 보석사(寶石寺)의 강사로 나아갔고, 성도환 학인은 일본 조동종립(曹洞宗立)학교에 유학길에 올랐으나 요절을 했고, 김훈영, 민동선, 김철(金澈), 최문석(崔文錫), 김경천(金景泉), 장석홍(張錫弘) 학인들은 서울 유학길에 올랐었다. 이들 80여 명 중 생존자(1991. 3. 1현재)는 민동선(91세), 김철(88세)용 두 분만이라니 인생무상을 절감할 따름이다.<sup>8)</sup>

실제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민동선과 김철의 증언을 정리한 기록이다. 민동선은 1917년에 지방학림에 입학하여 3·1운동 당시 상급반에 재학하고 있었다.<sup>9)</sup> 증언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월 25일 중앙학림 학생 전장현이 독립선언서를 김룡사에 전달하였다. 지방학림 학생 30여 명

8) 최병식, 「김룡사 지방학림 만세사건」, 『점촌·문경문화』 13, 점촌문경문화원, 1991, pp.4-5.

9) “내가 韓龍雲先生을 직접 聲容을 접하기는 1923년경인가 생각한다. 기미년 三月 독립운동 사건으로 三년 징역을 치르고 西大門감옥에서 나오던 그날부터였지마는 문필을 통하여 혹은 입으로 전하여지는 소문을 듣고 先生을 알게 된 것은 1917년 내가 金龍寺 地方學林 在學시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민동선, 앞의 글, p.16.)

은 태극기와 경고문, 독립선언문을 준비하여 4월 13일 장터로 향했다. 그러나 주지 혜옹의 만류로 중도에서 절로 돌아갔다. 이미 계획을 파악한 일본 헌병들이 무장한 채 뒤를 따랐다. 4월 14일 시위에 참여한 학생 27명이 헌병대로 압송되었다. 이들 중 김훈영, 송인수, 성도환 3인은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김룡사의 만세운동은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였다. 27인이 연행되었다가 3인이 실형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송인수와 성도환 2인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만세운동이 실행단계에서 중단되었는데도 이러한 실형은 과도한 처사였다. 일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와 결사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학교와 종교단체는 그 특성상 예외일 수밖에 없었다. 김룡사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지녔기 때문에 늘 일제의 관리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시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에서 과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한다.<sup>10)</sup>

거사가 중단된 이유를 주지 혜옹의 만류라고 하였으나, 사전에 혜옹의 밀고를 받은 헌병이 무장한 채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학생들의<sup>11)</sup> “독립선언서에 한용운과 백용성선생이 민족대표로 가담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들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까지 하였다.”라는 의분(義奮)만으로 현실의 총칼을 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10) “일반적으로 일제 식민통치권력이 주민의 일상으로 침투하는 경로는 면사무소(행정)·주재소(치안과 행정원조)·금융조합과 농회(경제)·학교(이테올로기)·관설단체(사회동원)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조선인의 일상에 침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가 바로 헌병경찰체였다. 당시 헌병경찰의 주요 정보수집대상은 주로 교육과 종교분야였다. 일제 무단통치시기에 사실상 모든 결사와 집회가 금지된 상태에서 학교와 종교단체만이 대중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요 정보수집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룡사 지방학림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곳인 만큼 일제 경찰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비록 만세시위를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또 학생들이일지라도 주동자에 대한 처리는 엄중하게 다스렸던 것으로 생각된다.”(문경시,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2009, pp.211-212.)

11) 1991년 당시 김철은 88세, 민동선은 91세였으므로 3·1운동 당시 이들은 17세, 20세였다.

### III. 김룡사 3·1운동의 주역

김룡사 3·1운동의 전개과정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장현, 김훈영, 송인수, 성도환, 민동선, 김철, 최문석(崔文錫), 최덕찰(崔德察), 김경천(金景泉), 장석홍(張錫弘), 그리고 주지 김혜옹 등이다. 30여 인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이름을 알 수 있는 인물은 10인 뿐이다. 이 가운데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은 전장현과 송인수, 성도환, 김훈영, 민동선 등 5인이다. 먼저 김훈영은 민동선 등의 회고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그에 관해서는 1920년 7월 예천불교포교당에서 강연하였다는 기사가 유일하다.

#### 佛敎學生舌禍, 통일론을 하다가 강연까지 못하고

경성에 류학하는 금룡사불교학생(金龍寺佛敎學生) 일동은 강연단을 조직하여 각지방에 순회강연을 하든바 지나간 이십륙일에 레천(禮泉)에 도착하여 오후 아홉시경에 동대불교포교당(佛敎布敎堂)안에서 강연을 개시하였는데 연사 김훈영(金勳永)군이 연단에 올라서서 ‘통일(統一)’이란 문제로 우리 민족의 과거력사가 광휘잇을 때에는 우리가 잘 통일되었을때이요 금일과 가치 조선사람이 쇠퇴한 것은 사회가 통일되지 아니하고 반상(班常) 사색(四色) 등의 차별이 잇기때문이라 금후에 우리가 다른 열강(列強)과 가치 사라가자면 이 차별을 일소하고 민족의 힘을 통일함에 잇스니 공자님의 ‘오도는일이관지(吾道一以貫之)’라는 일과 부처님의 ‘만법귀일(萬法歸一)’ 등의 말은 모다 이 통일을 의미한 것이라 말하는데 립석하였든 경관은 집회를 해산시키고 김훈영군은 경찰서에 안치 취조한후 그잇튼날 무사히 방면되었더라(레천)12)

1920년 7월 김룡사 불교학생들은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강연을 전개하였다. 26일 예천포교당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김훈영은 ‘통일’이라는 주

12) <동아일보> 1920. 7. 31.

제로 민족의 역사는 통일의 여하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강연하였다. 감시하던 경찰이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강연회를 중단시키고 김훈영을 연행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민동선은 앞서의 회고록을 남겼고, 송인수와 성도환에 관해서는 당시의 판결문이 전한다. 이 판결문을 통해 만세운동의 실상을 좀더 알 수 있다.

### 1. 송인수와 성도환

만세운동에 참여한 27인의 학생들은 연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5인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김혜옹이 무죄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그러나 송인수와 성도환(1899?~?) 2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다행히 1919년 5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6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인은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11일 밤 8시 경 김룡사 지방학림 기숙사에서 학생 최덕찰(崔德察) 외 십 수 명에게 4월 13일 대하리 헌병주재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시위운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불온언동 선동으로 보안법과 조선형사법 등을 위반한 행위이다.<sup>13)</sup>

송인수와 성도환은 50일이 넘게 구류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그 후 송인수는 전북 금산군 보석사의 강사로 활동하였고, 성도환은 일본 조동종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송인수는 만세운동의 공훈으로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형을 선고받은 성도환은 국가유공자로 추대되지 못하였다. 일본 유학 중에 요절하여 후손이 없었기 때문

13) 「송인수 등 2인 판결문」(1919. 6. 3),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판결문.

인 듯한데, 김룡사가 나서서 정당한 예우를 해야 할 일이다.

송인수는 공적 조서에 따르면 1896년 2월 18일에 태어나 1947년 11월 6일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본적은 경북 상주 화산이고, 이명이 송소경(宋小敬)이라고 하였다.<sup>14)</sup> 송인수의 경우는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판결문이 남아 있어 이 정도의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앞서 열거한 인물 대부분의 활동과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민동선의 회고처럼<sup>15)</sup> 민족의 현실과 신앙 등에 번민하다가 각자의 인생을 찾아간 듯하다.

## 2. 김혜용

김혜용(?~1926)은 1911년 일제에 의해 30본산체제로 전환된 본산 김룡사의 초대주지로 부임하여 입적하기까지 주지를 전담하였다. 만세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친일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잡지와 신문 기사를 통해 단편적인 활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912년 6월 17일 원종중무원에서 삼십본산 주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범어사 주지 오성월은 사법을 같게 하자면 먼저 종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에 대해서 김혜용은 현재 원종과 임제종이 양립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폐하고, 다른 하나를 존속시킨다

14) 김룡사 만세운동 보다 앞선 3월 23일 상주읍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참가자에 송인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만세운동은 상주의 청년들이 시장 중앙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5백여 명이 참여한 큰 규모였다. 일본 경찰에 의해 즉시 해산되고 주동자가 검거되었다고 한다. 1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그 중에 송인수라는 이름이 있다. 『독립운동사 제3권 : 삼일운동사(하)』,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사 pp.452-453. 김룡사의 송인수 역시 본적이 상주 화산 출신이었으므로(「송인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동일인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5) “거의 1년 동안 돌풍을 겪고 산으로 돌아온 우리들의 머릿속은 사뭇 착잡하기만 하였다. 지금까지의 희미하였던 민족의식이 강하려지는 동시에 항쟁의식이 발흥하는 것과는 별도로 나의 신앙생활과 사원생활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날 생각하던 나머지 동지 중에 한 사람은 일본 山口현 曹洞宗中學으로 가고 그의 다섯 사람은 서울로 보따리를 옮기고 말았다.”(민동선, 앞의 글, p.17.)

면 시비만 분분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선교양종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있는 종지이므로 종지를 선교양종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리하여 원종은 조선불교선교양종 본산 주지회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삼십본산연합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17년 1월 연합사무소의 위원장 및 상치원(常置員) 임원을 선임하였는데, 김혜용은 상치원이 되었다.<sup>16)</sup>

1923년 8월 조선불교청년회 김룡사지회에서 김혜용에게 주지 사임을 권고한 일이 있었다.<sup>17)</sup> 주지의 집권남용과 본말사 여론 무시, 노병으로 인한 사무 지장 등 독단적인 사찰 운영에 대한 조직적 반대였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김혜용은 30본산체제 이전부터 김룡사의 주지 역할을 하며 절의 전권을 장악하였다. 잔뜩 기개를 돋우며 만세운동에 나섰던 지방학림 학생들이 그의 호령에 발길을 돌릴 만큼 위세가 대단하였다. 그는 기득권을 지닌 기성세대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학생들이 구속되자 석방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sup>18)</sup>

김혜용은 김룡사의 근대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1926년 <동아일보>에서는 그의 추도식을 알리며 “지난 9월 22일에 세상을 떠난 고 김혜용 대선사는 20여 년간 주지로 근무하면서 교육사업에 열중하여 상주 보광강습소와 김룡사 지방학림을 설립 경영하여 사회에 공헌이 많았다.”<sup>19)</sup>고 평하였다.

### 3. 전장헌

김룡사 3·1운동은 전장헌의 독립선언서 전달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6) 문경시, 『운달산 김룡사』, 2012, p.105.

17) 「金住持辭免勸告」, <동아일보> 1923. 8. 23.

18) “이들이 구치되어 있는 기간 중 교장 혜용스님의 석방 운동도 크게 주효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었다. 당시 혜용스님의 언변과 수완을 일인들도 크게 경탄했었다고 한다.” 최병식, 앞의 글, p.5.

19) 「故金慧翁和尚追悼式」, <동아일보> 1926. 10. 9.

이름이 등장하는 10인 가운데 유일하게 만세운동 이후의 구체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룡사 출신으로 당시 중앙학림에 재학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중앙학림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김룡사로 내려가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지방학림 학생들에게 전했다. 김룡사 3·1운동의 과정과 전모가 워낙 소략해서 전장헌의 역할 역시 이 단편적인 증언이 전부이다. 그러나 김룡사 3·1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전장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3·1운동에서의 한용운과 중앙학림 학생들의 활약에 관한 증언과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전장헌의 역할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중앙학림 학생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20)</sup> 1919년 2월 28일 한용운은 자신의 거처인 계동 유심사(唯心社)로 학생 십여 명을 불러 만세운동의 기획 과정과 의미, 향후의 실천 방향 등을 설명하였다.

호남 방면의 박한영(朴漢永), 진진응(陳震應), 도진호(都鎭鎬) 여러 스님들과 경남의 오성월(吳惺月)스님 등과 회담을 교섭하였으나 교통, 기타 사정으로 면담하지 못하였고, 백용성(白龍城)선사만의 승낙을 얻게 되었다. 손의암(孫義庵)선생은 총대표로 기독교측 15인, 천도교측 15인 불교측 2인으로 결정하고 보니, 임진왜란시 국사(國事)에 분주하신 서산·사명 등 여러 스님의 법손으로써 우리가 이에 소수로 참여한 것은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다. …(중략)…

대략 나는 이상과 같이 활동하였다. 군(君) 등과 이제 분수(分手)하면 언제 만날는지 알 수 없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결연히 나선 우리는 아무 애(碍)도 없고, 포외(怖畏)도 없다. 군 등도 우리 뜻을 동포 제위에게 널리 알려 독립 완성에 매진하라. 특히 군 등은 서산, 사명의 법손임을 굳이 기억하여 불교청년의 역량을 잘 발휘하라.<sup>21)</sup>

20) 김광식, 「3·1운동과 중앙학림」, 앞의 책, pp.189-204.

21)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教」, 『新生』, 장간호, 1946, pp.15-16.

이날의 참석자는 김봉신(金奉信), 신상완(申尙玩), 백성욱(白性郁), 김상헌(金尙憲), 정병헌(鄭秉憲), 김대용(金大鎔), 오택언(吳澤彦), 김법린(金法麟), 박민오(朴珉梧), 김규현, 김호원 등 11명이었다.<sup>22)</sup>

한용운은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 3천 장을 주며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시내 일원에 배포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중앙학림 학생들은 인사동의 범어사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긴급회의를 하였다. 가장 연장자인 신상완을 총참모로 추대하였고, 백성욱과 박민오는 서울에 남아서 연락책 겸 진두지휘를 맡았다. 학생들은 내일 만세운동을 마치고 각자 연고가 있는 지역의 사찰로 내려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하였다. 정병헌은 구례 화엄사, 김대용은 대구 동화사, 오택언은 양산 통도사, 김법린·김상헌은 동래 범어사, 김봉신은 합천 해인사를 담당하였다. 충남, 강원, 함경, 평안, 경기의 각 방면에는 서울에 남아있는 3인의 학생 중에서 선택, 파견하기로 하였다.<sup>23)</sup> 이날 회의는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이후 정병헌이 독립선언서 3천 장을 인력거를 이용하여 중앙학림 기숙사로 옮겨 학생 40명에게 배부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3·1운동의 기획 단계에서 중앙학림의 청년승가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장헌은 2월 28일 한용운과 학생들의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병헌이 3천 장의 독립선언서를 중앙학림으로 가져와 40명의 학생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이 학생들 중에 전장헌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택언(吳澤彦, 1897~1970)의 활동을<sup>25)</sup> 통해 전장헌의 활약상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오택언은 통도사 출신으로 중앙학림 2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는 중앙학림 학생 김규현의 연락을 받고 2월 28일 한용운과의 회합에 참여하

22) 김법린은 앞의 회고록에서 참석자를 9명이라고 하였으나, (p.15) 오택언의 심문조서 등과 비교, 종합하면 참석자는 모두 11인이다.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앞의 글, p.223.

23)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教」, 앞의 글, pp.16-17.

24) 「오택언 신문조서 1」, 1919년 3월 1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 1993, pp.20-22.

25) 한상길, 앞의 글, pp.218-228.

였다. 3월 1일 새벽 3시까지 거사의 행동 지침과 이후의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거사 당일 오택언은 파고다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종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행진하며 만세를 외쳤다. 이후 밤 9시경 독립선언서 1백 매를 청진동에 살포하였다.<sup>26)</sup> 오택언은 3월 5일 통도사로 내려가 지방학림 학생대표 김상문(金祥文)과 강원 승려 등에게 만세운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통도사에서 만세운동을 거행할 계획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3월 7일 누군가의 밀고로 오택언은 체포되고 말았지만<sup>27)</sup> 통도사 청년승가들은 마침내 3월 13일 신평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장현의 활동도 이와 같은 오택언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즉 전장현은 3월 1일 새벽 정병헌이 인력거로 실어 온 독립선언서 백여 장을 받아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의 거사에 참여하였다. 시내 곳곳을 누비며 군중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독립선언서를 들고 김룡사로 내려갔다. 김법린이 회고하였듯이<sup>28)</sup> 한용운과 십여 명의 학생들은 이미 지방에서의 만세운동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전장현은 3·1운동 이후 청년불교운동에 앞장섰다. 당시의 신문과 잡지 등에서 그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1920년부터 1926년까지 8건의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 중 2건은 그가 직접 쓴 기고문이고, 나머지 6건은 활동을 전하는 보도기사이다. 이를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본다. 먼저 그가 쓴 기고문이다.

26) 「오택언 신문조서 2」, 1919년 6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6, 1993, pp.115-118.

27) 양산향일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양산향일독립운동사』, 2004, pp.74-75.

28) “지방 파견원은 각사를 찾아가 그 절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게 한 후, 선언서를 다수 등사하여 부근의 촌락, 도시에 가서 배부하고 선언식 거행, 만세시위를 하도록 할 것.” 김법린, 「三一運動과 佛敎」, 앞의 글, pp.15-17.

佛敎에 對하야(上)

錢藏憲 奇

一, 佛敎는 唯心の 敎나라

物이 本末이 有하고 事-始終이 有한지라 大抵-事物이 千差萬幻하야 因緣으로 서로 成하얏나니 萬一 其-本の 잇는바와 始의 謂한바를 不知하고 分別의 心を 因하야 下劣의 見을 逞하야 窮老盡氣하도록 一端을 固執하야서 求한즉 入海算沙와 相似하야 스사로 困할뿐이오. 事를 可終通치 못하며 物를 能히 盡格치 못할지니라. 是故로 他敎는 神祕를 侈言하야 不可傳이 안이면 冚-瑣屑을 鄙하야 不足道할것이라. 古今中外에 立敎한 者-多하나니-能히 此를 免하리오. 오즉 佛敎인즉 不然하야 其-一代時敎가 深度無涯하지만은 一言蔽之曰 三界唯心이라하며 그러하되 오즉 衆生이 信解치 못할가 念慮하야 再益하야 曰萬法이 唯識이라하니 大抵-佛이써 佛을 成한바 人者는 此心を 證 하얏다할뿐이오. 眞實도 自心外에 少法도 增함이 無하고 衆生이써 衆生된 바 卜者는 此心を 遺失할 분이나 또한 此心外에 沙法도 損함이 無한지라 今日 우리 半島의 程度가 不齊하고 思想이 不一함으로 進行의 沮碍가 此에 爲甚함이 업쓰니 此義를 便明하면 善惡과 仁果가 空花-같으며 生死와 涅槃이 昨夢과 相似할지라. 엇지 一人을 不收하며 一法을 未盡함이 有하리오. 是는 我佛의 本旨인저.

世上에 立敎한 자-가 如麻似栗하되 舉皆는 一神의 下에서 服從하야 永生토록 工夫을 做하되 其神을 崇拜할 而已오 其神과 같이는 絶對로 不能하다하니 此等의 敎는 다 平等敎가 되지 못하고 專制의 敎에 不過하지만은 오즉 佛敎인즉 不然하야 世界의 建立도 마음이오 또는 一切모 두 心이라 飛禽走獸와 昆虫까지라도 佛性이 有하다 할뿐아니라 마음이 잇는 者는 다 成佛한다 하얏나니라. 果然 그러함이다 佛도 別사람이 아니오. 距今 三千餘年前 印度 加羅城 淨飯王太子로 雪山에서 六年을 苦行修道하신 結果 오직 人人箇箇히 잇는 마음을 證할따름이오. 우리 衆生은 이 마음을 證하지못했으므로 佛과 衆生의 差別이 有할지언정 此心만 證하면 佛과 衆生이 조금 다를 것이 全無하니리. 我佛이 八萬四千의 經에 말씀하신 것이 舉皆 一切唯心 一切平等이어날 世人은 此를 誤解而 佛敎는 오직 一尊만 崇奉하니 平等의 敎는 아니오. 專制의 敎라하니 어

찌 可惜지아니하며 寒心치 아니하라. 余는 此等の 管見을 破除하기 爲하여 智識이 淺薄함을 不顧하고 一二的 例를 擧하여 여러분께 告하노이다.<sup>29)</sup>

불교는 전제(專制)의 종교가 아니라 평등의 종교이며 사상의 핵심은 일체유심에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전장현의 생몰년대조차 불분명하다. 1919년 당시 중앙학림 학생이었으므로 그저 20대 초중반으로 짐작할 뿐이다. 1920년 6월, 20대 초중반의 청년승가는 당시 불교를 ‘오직 일존(一尊)만 숭봉(崇奉)하는 전제(專制)의 교(敎)’라는 지적에 감정적이고, 투박한 어투로 ‘평등의 교’를 강조하였다. 기고문의 제목이 「불교에 대하여(상)」이었으므로 중편, 하편으로 이어지는 연재글이었으나, 신문에는 더 이상 게재되지 않았다. 다소 어렵고, 단언적인 글의 내용도 연재가 중단된 이유였을 듯하다.

다음 기고문은 <동아일보> 창간을 축하하며 신문의 사명과 기대를 적은 글이다.

#### 東亞日報君에게

中央學林 전장현

아! 東亞君 濃雲이 密積한 곳에는 霹靂의 소리가 반다시 클것ियो. 霜雨가 支難한 桴해은 太陽의 빛이 더욱 鮮明하도다. 과거 十年을 暗黑한 桴해 於是乎 我東亞君이 半島의 中心地인 京城에서 霹靂의 소래를 부르 지진 지가 既히 二個月의 餘가 되엿도다.

아! 東亞君, 君은 眞實노 우리 半島社會에 新曙光을 背負한 君이라. 決코 容易한 事가 아니니 君은 先히 이 重且大한 責任을 自覺치 아니치 못할 것이로다.

아! 東亞君, 君이 公明正大한 筆法으로 우리 暗黑한 半島의 民族을 爲하여 奮鬪하고 努力치 아니하면 우리의 曙光은 自然히 消却할 것ियो. 君이 勇敢한 氣魂과 強健한 意思로써 活動하고 努力에 素養을 삼으면 우

29) <매일신보> 1920. 6. 29.

리 社會에 偉大하고 强健한 曙光이 大努力을 發揮할 것이로다.

아! 東亞君 我半萬年 宏傑한 집이 十年間 暴惡한 風雨에 頹落이 되었도다. 然하면 이 集의 基礎를 堅固케함도 建設케함도 또는 薄弱케함도 暗黑케함도 다! 君의 氣魂强健과 精神修養 與否에 在하다하노라.

아! 東亞君 灼灼한 日輪이 扶桑에 湧出하니 舉世가 皆明이어날 我 半島는 暗暗함이 如此히 甚하며 喔喔한 晨鷄가 桃林에 頻唱하니 萬邦이 皆醒어날 我半島 二千萬中에는 아즉도 春夢을 未醒한 人士가 太多하니 君의 猛烈한 一聲獅子의 音으로 警醒케할지이다.

아! 東亞君 現今世界를 一看할진대 新曙光의 舞臺上에서 춤추는 民族이 얼마나 잇스며 暗黑의 路中에서 方向을 定치 못하고 彷徨하는 民은 누구인가? 此暗黑裡에서 彷徨하는 者의 理由를 吐說코져 할진대 다름이 아니라 特히 其의 意志가 薄弱하고 其의 體力을 鍛鍊치 못한 故이라 하노라. 其의 意志가 튼튼치 못하고 其의 體力이 健強치 못하면 過去는 勿論하고 未來에도 更히 一層 自主自立치 못할 줄로 信하노라. 如此한 同胞에게는 君이 健強의 責任을 代表하여 猛虎의 一聲을 부르지질지이다.

아! 東亞君 理想의 大社會를 建設케함은 若干의 다른 理由도 有하다 하겠지만은 其 原因의 基礎가 何에 在하나하면 卽 그 社會의 固有한 自主自立의 精神과 百折不撓한 意志가 有한 君의 頭腦에 充滿하고 勇性勉進하는 一念에 在하다 하노라.

아! 東亞君 我 半島를 世界列邦에 더욱 빛내고져 하라하면 一點의 瑕庇가 無히 君의 絶大한 公筆과 無雙한 公法으로 吐說할 뿐이라 하노라.

아! 東亞君이여,

우리가 恒常祝願하고 바라는 바는 君의 壽는 長白山과 如하고 君의 命은 鴨水와 如하여 我 二千萬 生靈의 幸福의 命脈도 또한 君과 始하고 我 三千里 江山의 新光明도 또한 君이 元祖가 될지로다. 君이! 此世界 人道正義의 新空氣를 呼吸하고 自由의 思潮에 沐浴하면 君의 身體는 自然히 더욱 健強多福할 것이며 壽命은 進進하여갈수록 强健할줄노 信하고 一念의 萬歲로 祝하노라.<sup>30)</sup>

30) <동아일보> 1920. 6. 29.

「동아일보군에게」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를 의인화하여 신문의 책임과 사명, 기대를 표현하였다. 눈에 띄는 구절이 여럿 있다.

① 과거 十年을 暗黑한 곳에 於是乎 我東亞君이 半島의 中心地인 京城에서 霹靂의 소리를 부르지진 지가 旣히 二個月의 餘가 되었도다.

② 此暗黑裡에서 彷徨하는 者의 理由를 吐說코져 할진대 다름이 아니라 特히 其의 意志가 薄弱하고 其의 體力을 鍛鍊치못한 故이라 하노라. 其의 意志가 튼튼치 못하고 其의 體力이 健強치 못하면 過去는 勿論하고 未來에도 更히 一層 自主自立치 못할 줄로 信하노라. 如此한 同胞에게는 君이 健強의 責任을 代表하야 猛虎의 一聲을 부르지질지어다.

③ 아! 東亞君 理想的 大社會를 建設케함은 若干의 다른 理由도 有하다 하겠지만은 其 原因의 基礎가 何에 在하나하면 卽 그 社會의 固有한 自主自立의 精神과 百折不撓한 意志가 有한 君의 頭腦에 充滿하고 勇性勉進하는 一念에 在하다 하노라.

전장헌은 과거 10년 동안의 암흑기에서 창간한 지 두 달 지난 <동아일보>의 벼락과도 같은 소리를 칭송하였다. 암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자립 정신과 백절불요(百折不撓)의 의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역할을 기대한다는 취지이다. 10년의 암흑은 1910년 주권상실 이후 1920년 당시까지의 시대를 말한다. 전장헌은 이 시기를 거침없이 암흑기라 규정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주자립과 불굴의 의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장헌의 민족독립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일제의 치밀한 검열과 통제 하에서도 전장헌은 그들의 통치가 조선민족의 ‘암흑기’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자립 정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전장헌은 1920년 11월에는 조선학생대회(朝鮮學生大會)의 서기를 맡았다.<sup>31)</sup> 조선학생대회는 1920년 5월 학생의 친목과 단결 도모, 조선물산의

장려, 지방색 타파 등을 목표로 출범한 전국적인 학생단체였다. 그러나 일제의 압력으로 회원의 80%에 달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참가가 금지되어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1923년 2월 조직 범위를 축소하여 전문학교 학생만으로 조선학생회가 조직되었다.

1921년 7월 전장헌은 김룡사에서 거행된 동경불교유학생 강연단을 주관하였다.

### 佛敎靑年講團 着慶

東京佛敎遊學生講演團 一行은 去九日 慶北 聞慶郡 山北面 金龍寺 萬歲樓에서 講演會를 開하였는데 錢藏憲氏의 開會辭가 有한 後 三人 合唱과 風琴 소래는 聽衆을 快樂케하였다. 따라서 講演을 始한 卞 金敬弘氏는 社會와 宗教란 題로 金相哲氏는 時代的 宗教한 題로 各其 熱辯을 吐하야 滿場喝采의 盛況을 모하였스며 更히 金太治<sup>32)</sup>氏의 바이올링 宋東浩氏의 獨唱은 더욱 會衆의 心身을 爽快케한 卞 當日聽衆은 二百餘名에 至하였다더라(聞慶)<sup>33)</sup>

만세루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전장헌이 개최사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 그가 지닌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1923년 무렵 전장헌은 상주유심소년회(尙州唯心少年會)를 창립하였다. 지방 소년운동을 조직적으로 개최하려는 목적이었다.<sup>34)</sup> ‘유심’이라는 조직명이 눈에 띈다. 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불교는 유심의 교’라며 유심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한용운이 1918년 9월에 창간한 월간지 『유심』의

31) 「朝鮮學生大會」, <매일신보> 1920. 11. 8.

32) 金太治 ; 金泰洽(1899~1989)이다. 1918년 일본에 유학한 후 유학생들의 조선순회 불교강연회에 참석하였다.

33) <동아일보> 1921. 7. 13.

34) 「巡廻探訪(百七) 著名한 特産은 明緬와 乾柿(2)」, “尙州唯心少年會 尙州西町에 事務所를 두고 錢藏憲氏의 發起로 創立되야 벌써 몇해를 두고 地方少年運動에 많은 貢獻을 하는 中이며 代表人物은 錢藏憲氏라 한다.”(<동아일보> 1926. 10. 15.)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유심소년회는 당시 상주 서정(西町)에 사무소가 있었고, 1924년 1월 상주 보광학교에서 ‘학업성취에는 재(才)나 동(動)이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수천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전장현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고 한다.<sup>35)</sup>

전장현의 이와 같은 소년운동, 청년운동에 대한 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1926년 1월 상주 노동청년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sup>36)</sup> 이 날의 결의사항은 웅변대회 구역 확장, 강연회 개최 등이었다.

#### IV. 김룡사의 의병투쟁과 근대교육 활동

김룡사의 만세운동이 실행되었던 기저에는 절이 간직하고 있던 역사적, 불교적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김룡사는 6세기말에 창건되어 1,4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주권상실기에는 31본산의 하나로서 50개의 말사를 거느린 대찰이었다.<sup>37)</sup> 근현대불교의 석학 권상로(權相老, 1879

35) 「尙州少年討論」, “慶北 尙州郡 唯心少年會 主催와 本社 尙州分局 後援으로 新年劈頭에 어린이의 부르지음을 뜻기 爲하야 ‘學業成就에는 才나 動이냐’란 問題로 懸賞討論大會를 當地 普光學校 講堂에서 去二十七日 下午 七時부터 開催된 바 定刻前부터 몰너드는 聽衆은 滿場盛況을 目하였다. 錢藏憲氏의 開會辭와 普光學校 代表 陣鎮淑君의 可便 ‘才’의 熱辯이 비릇하야 唯心少年會 代表 尹潤錫君의 否便 ‘動이냐’라는 問題로 可便 陣君의 反抗이 있슨 後 各 團體 代表者의 可否便 論爭은 참으로 數千의 聽衆을 熱狂케 하였스며 審査委員의 審査가 有한 後 閉會 하얏는데 勝利는 才便으로 歸하였다더라.(尙州)”(<동아일보> 1924. 2. 1.)

36) 「嶺南地方」, “尙州勞靑委員會 慶北 尙州 勞動靑年會에서는 居 十三日 下午 八時에 同會館에서 第四會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左記 事項을 決議한 後 執行委員 三人을 增選하고 同十時頃에 無事히 散會하였다고(尙州) [增選委員] 金大福, 錢藏憲, 金虎 [決議事項] 一, 雄辯大會 區域을 擴張하야 永同及 漆谷郡을 參加區域으로 編入할 것. 二, 講演會 開催事는 常務委員會에 一任할 것. 三, 臨時總會를 來 二十日에 本會館에서 開催할 것.”(<동아일보> 1926. 1. 19.)

37) 「경상북도 문경군 운달산 김룡사」, 『역주 조선불교통사』,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2010, pp.625-626.

~1965)와 안진호(安震湖, 1880~1965)가 이곳에서 강석을 열었으며, 성철(性徹, 1912~1993)은 1965년 김룡사에서 첫 대중법문을 열어 중도를 설법하였다.

절의 역사에서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부분이 한말 의병투쟁과 근대교육 활동이다. 일제에 항거한 의병투쟁은 곧 민족의 독립을 외친 만세운동과 직결되고 근대교육 활동은 3·1운동이 지닌 민족의 자주·자립정신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 1. 의병투쟁과 김룡사

한말 의병투쟁의 선봉장인 이강년(李康年, 1858~1908)이 문경 출신이다. 그는 1896년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래 1908년 총상을 입고 체포되기까지 12년을 일본군 토벌에 헌신하였다.<sup>38)</sup> 그의 투쟁은 강원도·충청도·경상북도 일대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이강년의 의병투쟁 과정에서 사찰은 중요한 거점이었다. 그가 주둔하거나 전투를 치른 사찰은 봉복사(鳳服寺)·봉명사(鳴鳳寺)·김룡사·대승사·고음사(古音寺)·방두사(旁杜寺)·백담사(百潭寺)·오세암(五歲庵)·신흥사(神興寺) 등이었다.<sup>39)</sup>

특히 문경지역에서의 활동과정에서 김룡사를 비롯한 대승사, 명봉사 등의 사찰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40)</sup> 1907년 9월 5일 이강년부대는 김룡사에 주둔하였다. 이 무렵 각지의 의병 1,500명이 문경으로 집결하였고, 9월 7일 이강년부대는 문경읍의 일본군을 축출하였다. 당시 일본군의 전문에 따르면 문경지역의 이강년 의병은 김룡사에 약 200명, 대승사에 약 170명, 적성에 약 2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다.<sup>41)</sup> 일본군 토벌대는

38)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pp.174-183.

39) 이승윤, 「후기 의병기 일본군의 사찰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70, 2014, p.73.

40) 1907년 9월 12일 이강년부대는 대승사로 진영을 옮겼다가 13일 적성을 거쳐 14일 예천 명봉사로 이동하였다. 당시 의병부대는 명봉사 스님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 앞의 책, p.95.

41)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p.194.

의병의 근거지로 대승사와 김룡사를 지목하였다. 일본군은 김룡사 의병을 공격하면서 절의 승려들이 저항하면 소각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소각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sup>42)</sup> 9월 19일 일본군 토벌대장 기구찌대좌는 대승사와 김룡사에 경고장을 보내 의병투쟁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sup>43)</sup> 김룡사와 대승사는 화마를 면했으나 이들은 절의 의병이 비축하고 있던 양식 등을 약탈하였고 그 물품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이와 같이 의병전쟁기(1897~1910) 사찰의 피해는 막심하였다.<sup>45)</sup> 대부분의 사찰이 깊은 산중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전각과 요사, 식량 등을 갖추어 의병의 주둔지로 최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은 의병과 일본군 양쪽에 공통적이었다. 즉 사찰은 의병과 일본군의 근거지로 활용되면서 양쪽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받아야 했다.<sup>46)</sup> 이러한 현실에서 사찰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살상과 방화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중차대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사찰은 일본 종파의 말사로 편입되어 보호를 받고자 이른바 관리청원(管理請願)을 신청하는 등 그들의 위세에 타협하는 일이 빈번하였다.<sup>47)</sup> 이처럼 여러 사찰이 관리청원을 신청하는 상황에서도 문경지역의 김룡사와 대승사, 명봉사 등은 변함없이 의병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이후 김룡사는 독립군의 군자금 을 제공하는 등<sup>48)</sup> 민족독립 정신을 지속해나갔다.

42)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앞의 책, p.96.

43) “이 사찰은 용희 초년의 난에 적도의 소굴이 되어 소각하여야 마땅하나 너희들이 이 사찰이 한국의 명찰이고 잠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 애석히 여겨 경계하는 뜻으로 잠시 특별히 존치한다. 명치 40년 9월 안동문경방면 대일본군지휘관 육군보병대좌 菊池主殿”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앞의 책, pp.107-108.

44) 『운달산 김룡사』, 앞의 책, p.112.

45) 1907~1909년 사이에 36개소의 사찰이 소각되었다. 이승윤, 앞의 글 pp.78-82.

46) 한동민, 『의병전쟁기 불교계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8, pp.46-48.

47) 한동민, 앞의 글, pp.36-42.

48) “1919년 5월 해인사 승려인 김봉률·박달준·강재호·송복만·손덕주·박덕윤·이창욱·김장윤, 그리고 대흥사 승려인 박영회는 만세시위를 주도한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로 침투하였다.

## 2. 김룡사의 근대교육 활동

김룡사는 1907년 승려들의 근대교육을 목적으로 경흥학교(慶興學校, 金龍學校)를 설립하였다. 대승사의 권화응(權華應), 김룡사의 김월현(金月現), 남장사의 김취선(金就善), 용문사의 윤포운(尹布運), 명봉사의 이월운(李月運), 광흥사의 김담화(金曇華) 등이 청년승려 교육을 위해 창설하였다.<sup>49)</sup> 경북 지역의 사찰이 단합하여 근대교육을 시행하는데 서울의 명진 학교를 본교를 하는 지방학교의 형식이었다. 한편 1908년 5월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일 무렵 김룡사에서도 의연금을 출연하였다. 13인이 힘을 모아 4원 35전을 냈는데 이 가운데는 10세 아동도 포함되었다.<sup>50)</sup>

1911년에는 보통강숙이 설립되었다. 1913년 절에는 이 보통강숙과 4개의 전문강당이 운영되고 있었다.<sup>51)</sup> 1915년 경흥학교 졸업식에서 2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1917년말 김룡사에는 불교전문[전문강원]과 지방학림, 보통학교[김룡학교] 등의 여러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었다.<sup>52)</sup> 전국의 본사 중에서 불교전문과 지방학림, 보통학교의 세 교육기관을 모두 구비한 사찰은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송광사, 선암사, 백양사, 은해사,

---

이들은 남만주 서로군정서 영수증을 갖고 김룡사·고운사·범어사에서 군자금을 모금했다.” 김광식, 「불교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종교계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197-198.

- 49) “慧炬復命 慶北 聞慶郡 大乘寺 權華應 金龍寺 金月現 尙州 南長寺 金就善 禮泉 龍門寺 尹포(包)運 豐基 鳴鳳寺 리月運 安東 廣興寺 金曇華 등 諸刹는 曾遊叢林 하야 慈悲修善者 久矣러니 一朝의 見時宜가 異前하고 翻然和光하야 新學問上의 熱心注意하여 青年僧伽教育發達할 目的으로 八郡寺刹共立 慶興學校를 大乘寺(김룡사이다. 필자주)에 設立하고 東大門外 明進學校로 本校를 삼아 教師 延聘하며 學徒 募集을 한다는 聲聞이 藉藉하니 我東方佛法之慧炬가 滅而復明을 於斯可卜 이라고 無不讚頌하더라.” <대한매일신보> 1907. 1. 10., <황성신문> 1907. 1. 10.
- 50) “「義捐金收入廣告」 慶北 聞慶郡 山北面 金龍寺僧 朴允協 朴和玉 各 一圓 崔就墟 五十錢 林龍谷 金月現 리退山 權夢奎 崔智憲 리종冕 黃範洞再回 黃慶五 리祐聲 各二十錢 十歲童玄太星 五錢 合四圓三十五錢” <대한매일신보> 1908. 5. 16.
- 51) 「大正二年度 各本末寺普通學校及專門講堂調査表」, 『해동불교』 4, 1914, pp.81-82.
- 52) 「三十本山付末寺僧尼及學生信徒數調」, 『조선불교총보』 8, 1918, pp.72-74.

그리고 김룡사의 8개 사찰뿐이었다. 전문강원에 54명, 지방학림에 23명, 김룡학교에 15명이 수학하는 등 절은 1백 명에 가까운 청년승가와 학생들의 학구열로 가득 찼다. 당시 김룡사의 전체 승려는 346명이었다.<sup>53)</sup>

1919년 4월 만세운동 당시 절의 지방학림에는 80여 명의 학생들의 재학 중이었다. 당시 지방학림은 3년 3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학림은 1915년에 설립 인가를 받았다. 30본산연합사무소에서 제정한 주요 학칙 강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지방학림은 승려에게 필요한 학과를 교수하여 지덕(智德)을 높이고 조선불교중앙학림에 입학할 예수(預修)를 위함을 목표로 한다. 제2, 3조. 수업연한은 3년, 학기는 3학기. 제5조. 입학자격은 만 13세 이상으로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등이다.<sup>54)</sup> 이 규정에 따라 김룡사 지방학림은 50여개 말사에서 온 공비생과 상주·문경·예천 지역의 학생들 3개 반으로 운영되었다.<sup>55)</sup> 앞서 살펴보았던 민동선은 80여 명 가운데 십여 명이 일반학생이고 나머지는 모두 승려라고 하였다.<sup>56)</sup>

1920년 7월 김룡사 지방학림 학생들은 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강연을 전개하였다. 26일 예천포교당에서 개최한 강연회는 김훈영의 민족 통일 발언을 문제 삼은 경찰에 의해 중지되기도 하였다.<sup>57)</sup> 1921년에는 지방학림의 입학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여 확장을 논의하는 등 학교의 위상이 더욱 커져 갔다.<sup>58)</sup>

53) 『조선불교총보』 8, 1918, p.94.

54) 『東大七十年史(1906~1976)』, 칠십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출판부, 1976, pp.29-30.

55) 김룡사 지방학림을 2년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있다.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앞의 책, p.198) 그런데 민동선은 1917년에 지방학림에 입학하였고 (민동선, 앞의 글, p.16) 1919년 당시 상급생이었다고 하므로(최병식, 앞의 글, p.4) 3년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56) “韓龍雲과 白龍城先生이 민족대표로 가담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들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까지 하였다. 그때 지방학림학생들 수효가 모두 80여 명이 있었는데 속가에서 온 십여 명을 제외하고 승려학생들은 거의 같은 심정이었다.”(민동선, 앞의 글, p.16.)

57) <동아일보> 1920. 7. 31.

58) “慶尙北道 聞慶郡 山北面 金龍寺에서 學校를 設立하여 十餘星霜을 經過하도록

지방학림은 불교의 근대화는 물론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함양 등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일반 사립학교가 구국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되어 항일의식이 강했던 데 비해 불교계 지방학림의 항일의식은 미약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59)</sup> 일본인이 교사로 활동하고 일본어를 교습하는 등의 예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관리와 통제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지방학림의 청년승가와 학생들은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독립을 위한 실천으로 만세운동을 감행하였다. 민동선의 회고가 이를 잘 말해준다. “독립선언서에 한용운과 백용성선생이 민족대표로 가담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들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까지 하였다. 교실 수업시간이 끝나면 산골로 물가로 돌아다니면서 시국을 논하고 우리의 행동계획을 약속하곤 하였다.” 1920년 7월에 개최한 지방학림의 순회강연단 활동도 이러한 민족의식의 실천이었다.

## V. 맺음말

지방학림은 불교계 3·1운동의 본거지였다. 한용운과 유심사에 모여 만세운동을 기획했던 중앙학림 학생들은 대부분 각 사찰의 지방학림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출가 본적에 따라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표충사 등지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추동하였다. 불교계 3·1운동의 시작과 끝이 지방학림이었고, 김룡사의 만세운동도 이렇게 전개되었다.

일찍이 김룡사는 민족과 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쳤다. 의병투쟁의 거점으로서 진영(陣營)의 기능을 수행하였고, 일제에 의해 식량과 재

---

靑年子弟들 敎育하여 옴은 기히 報道하였거니와 今年에는 入學者數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학교가 狹小하여 다 받지는 못하게 됴므로 많이 拒絶하였는데 이제보다는 크게 擴張하기 爲하여 金龍 本末兩寺間에서는 次協議를 開催하였더라.” <조선일보> 1921. 6. 25.

59)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2005, pp.62-63.

물이 압수되는 고난을 여러 차례 겪었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의연금을 모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김룡사의 민족의식은 마침내 근대 교육을 시행하는 지방학림과 보통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07년 설립한 경흥학교는 김룡사는 물론 대승사, 남장사, 용문사, 명봉사, 광흥사 등의 경북지역 사찰이 청년승려 교육을 위해 창설하였다. 승려뿐만 아니라 재가 청년까지 아우른 근대교육의 산실이었다. 민족의 근대화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방학림에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에 눈뜬 청년들은 독립의 의지를 결집하여 만세운동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쳐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도 민족 계몽과 교육, 사회활동, 그리고 청년불교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전통과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불교계이지만 국가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찰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된다.

## 참고문헌

- 강대민,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판결문.
- 국가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 1993.
- 김광식, 「불교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8, 종교계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_\_\_\_\_,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7.
- \_\_\_\_\_, 「3·1운동과 중앙학림」,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6,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7.
- 김범린, 「三一運動과 佛敎」, 『新生』, 창간호, 194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6 : 3·1운동사자료집』, 1984.
- 문경시, 『문경의 의병과 독립운동사 연구』, 2009.
- \_\_\_\_\_, 『운달산 김룡사』, 2012.
- 민동선, 「韓龍雲先生 回想記」, 『불교계』 22, 1969.
- 양산향일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양산향일독립운동사』, 2004.
-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2005.
- \_\_\_\_\_, 「후기 의병기 일본군의 사찰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70, 2014.
- 최병식, 「김룡사 지방학림 만세사건」, 『점촌·문경문화』 13, 점촌문경문화원, 1991.
- 한동민, 『의병전쟁기 불교계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 대한불교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 2018.
- 한상길, 「통도사와 표충사의 3·1운동」, 『한국불교학』 88, 한국불교학회, 2018.

## Abstract

### The March First Movement of the Kimryong-sa

Han, Sang-gil

(Assistant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

There has been no study of Kimryong-sa's The March First Movement. Although there is a limit to the lack of data, the lack of interest in the academic and Buddhist, among other things, was the main reason. Only two documents directly convey the Kimryong-sa's Movement. The first is a memoir written by Min Dong-sun in 1969, who participated in the Manse Movement as a student of the local school of Kimryong-sa. The following is a magazine article written in 1991 that reconstructed Kim Chul's memoir, which was also a local student. Based on these data, review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Mansae movement. Furthermore, searched materials such as modern newspapers and magazines to see what activities the main players of the time had since carried out.

Earlier, Kimryong-sa made various efforts for the nation and society. As a base for the struggle against Japanese, it served as a function of the camp. Despite the difficult situation, they gathered money and participated in the government bond compensation movement. This national consciousness of Kimryong-sa fin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local learning and ordinary schools that implement modern education. The young people, awakened by new learning and ideas in the local school, united their will for independence and formed a full-scale movement. However, it did not realize it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the reality, but it did not stop the moderniz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people through national enlightenment, education, social activities, and the youth Buddhist movement.

Key words

Kimryong-sa temple, A local school in Kimryong-sa, The March First Movement, Han Yong-un, Jeon Jang-heon, Song In-su, Sung Do-hwan, Kim Hun-yeong, Kim Hye-ong